

'바이전주' 활성화 위한 소통 나서

우범기 시장,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 갖고 방안 논의·기업 애로사항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강한 경제를 견인할 전주지역 대표 우수상품 생산업체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15일 전주시장실에서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소속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바이전주우수상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한 경제'를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정한 우 시장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바이전주우수업체 대표들을 격려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전주 경제를 이끌고 안정적인 고용유지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바이전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는 전주시에 △시정 및 시 산하기관의 지역 생산제품 및 바이전주우수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바이전주우수상품의 내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5일 전주시장실에서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소속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바이전주우수상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는 전주시로부터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상품을 의미하는 바이전주우수상품 인증 업체들로 지난 2006년 결성됐으며, 현재 식품류·생활용품/의류·한지/지류·전기전자/

환경 분야의 32개사가 43개 품목의 상품을 인증받고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이들 바이전주우수업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바이전주 인지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바이전주

우수상품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전주다움 시정소식지를 통한 기업 소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상문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장은 "업체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바이전주 활성화 방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시장님과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면서 "전주시가 바이전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만큼 우리 협의회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힘을 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제시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품질 기반조성, 기업 맞춤형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해 바이전주 라는 전주 브랜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이 마음 편히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주시는 산업현장의 규제를 하나씩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교통안전 강화 총력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민생치안 예방활동 최선 다할 것"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사진)이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 교통안전 등 민생치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 청장은 15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4000만 원, 1년에 150억 정도를 피해 보고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번 당하면 피해금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보이스피싱, 유령법인, 대포통장, 인터넷 도박 등 금융사기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면서 "전북경찰도 이에 동참해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꼬리물기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지난 추석에는 30만대의 차량이 전북을 오갔는데 올해 추석은 연휴가 짧았음에도 82만대의 차량이 유입됐다"면서 "많은 차량이 전북을 오갔음에도 큰 사고가 없어 교통 소통이 원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출·퇴근 시간 대에는 여전히 꼬리물기로 인해 도로가 꽉 막히고 음주운전자도 많다"며 "하반기에는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출·퇴근 시간 꼬리물기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으로 바른먹거리 확산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다문화가족 100여명·노인 400여명 대상 교육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을 다문화가족과 노인까지 확대해 건강하고 바른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오는 10월부터 다문화가족 100여명과 노인(고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역 먹거리의 소비를 촉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초·중·고

교생과 남성(아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전주형 마을부엌 및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먼저 다문화가족 식생활교육의 경우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다문화가족 교육은 우리 음식의 소중함을 알리고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우리음식의 장점 △올바른 식생활실천 등의 교육과 더불어 한식 조리실습도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대상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의 경우 노인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전주지역 20여 곳의 경로당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식생활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과 전주푸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식생활교육을 통해 안심먹거리인 전주푸드를 흥

보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의 소비확산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전주형마을부엌 식생활교육과 △초·중·고 학생 식생활교육 △아빠(남성) 식생활교육 △아빠(여성) 식생활교육 △전주시 스쿨팜 연계 식생활교육 등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을 통해 총 2330명에게 바른 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해와 로컬푸드 소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식생활교육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문경위, 문화예술 현장 점검

예술단운영사업소·팔복예술공장 방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가 15일 전주 예술 사업의 중심인 예술단운영사업소와 문화플랫폼으로 재탄생한 팔복예술공장 등 문화예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활동은 코로나로 약화된 지역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실무진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전주 예술의 중심축인 예술단운영사업소를 방문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공연장과 연습실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향악단과 국악단, 합창단, 극단으로 구성된 예술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단운영사업소 실무진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이



된 팔복예술공장에서는 꿈꾸는 예술터와 예술교육 체험공간 등 연도별로 조성한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문화는 그 지역의 진정한 지역이자 성장의 발판"이라며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29억원 부과

전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여 건, 62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공시지가(8.93%) 및 주택가격(11.21%)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16일에서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가까운 동 주민

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27기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이번 부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기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및 특례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됐다.

강제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2079톤 매입 추진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2022년산 공공비축미 2079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포대비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92톤 증가한 것으로, 올해 전북 지역 전체 매입 규모인 8만8329톤의 2.3%에 해당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기간은 포대비의

경우 오는 10월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 환산가격으로 전국 단일가격을 적용하며 종산정산금(3만원)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차액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